



제주SK “안양 2연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15일 K리그1 23R 홈경기
19일 코리아컵 16강전
최근 안양 상대 1승4패
팀 상승세 “열세 극복”

전북 원정 징크스를 깨면서 7경기 무패를 달리는 제주SK FC가 안양을 상대로 이번에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제주SK는 15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과 ‘하은행 K리그1 2026’ 23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이어 제주SK는 코리아컵 16강 경기로 오는 19일 원정에서 안양과 다시 만난다.

안양과의 2연전은 K리그1에선 4위로 또 한번 도약할 수 있고 코리아컵은 8강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파이널



지난 8일 K리그1 전북 현대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제주SK FC.

제주SK FC 제공

A 마지노선인 6위를 놓고 안양(승점 30)과 인천(승점 29) 포항(승점 28)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일 K리그1 22라운드에서 2022년 5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전북을 상대로 방문 승리를 거둔

제주SK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3승4무)를 질주하며 8승7무7패 승점 31점으로 5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6위를 달리고 있는 안양이 녹록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는 최근 안양과의 5경기에서 1승4패로 극도로 부진하다. 올

시즌 2경기에서도 모두 1-2로 패하면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팀 상승세를 고려하면 의외로 쉽게 고비를 넘을 수 있다. 네게바와 아이아스의 골 감각이 절정에 달해 있고 이창민과 이탈로, 장민규를 중심으로 중원과 수비도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제주SK의 코리아컵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2024년 시즌은 김포FC를 꺾고 4강에서 올랐으나 포항 스틸러스와 1무1패로 준결승에서 탈락했고 2025년 시즌도 3라운드 첫 경기였던 부천FC와 연고지더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제주SK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지난 전북전 승리 후 “앞으로 매 경기 승리를 바라보고 뛸 것”이라며 “우리는 야망이 있는 팀”이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위영석기자 vswi1968@ihalla.com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연합뉴스

‘GOAT 후보’ 안세영, 정상 탈환 정조준

17~23일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지난달 부상 털어내고 출전

부상을 털어낸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이자 ‘GOAT’ (Greatest Of All Time, 역대최고)를 노리는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선수권대회 두 번째 금빛 스매시를 준비한다.

안세영을 필두로 한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오는 14일 결전지인 인도 뉴델리로 출국하며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선다.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하계 올림픽과 더불어 배드민턴 종목 최고 권위와 영예를 자랑하는 무대다.

2023년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던 안세영에게 이번 무대는 커리어 네 번째 출전이다.

직전 2025년 대회에서는 4강에서 천위페이(중국·4위)에게 탈미를 잡혀 최종 3위로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그러나 안세영은 아픔을 발판 삼아 한층 더 굳건해졌다.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3175달러) 등 굵직한 이정표를 세우며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장식했다.

올 시즌의 기세도 매섭다. 슈퍼 1000 전영오픈을 제외하고 단체전 포함 출전한 7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휩쓰는 괴력을 과시했다.

비록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부상으로 우승 행진에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제 컨디션만 회복한다면 현재의 안세영을 막아설 마땅한 적은 없다는 평가다.

상대 전적도 이를 증명한다.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의 최근 5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3위 왕즈이(중국)를 상대로도 전영오픈을 제외한 최근 13번의 맞대결 중 12승을 거뒀다.

안세영은 지난달 29일 취재진과 만나 “부상으로 기권했을 때에 비해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며 “비율로 치자면 80~90% 정도 회복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U-17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의 세리머니.



장수인(8번)과 최민주의 ‘찰칵’ 세리머니.

국제배구연맹 제공

U-17 여자배구, 필리핀 완파 세계선수권 8강 진출

내일 튀르키예와 4강 경쟁

우리나라 17세 이하(U-17) 여자배구대표팀이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 8강에 진출했다.

이승여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13일(한국시간)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U-17 세계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필리핀을 세트 점수 3-0(25-21, 25-18, 25-14)으로 완파했다.

조별리그에서 5연승을 질주하며 조 1위로 16강에 오른 우리나라는 무패 행진을 벌이며 8강으로 진격해 15일 오전 9시 칠레 산티아고 국립 스타디움 파크 코트에서 일본을 16강에서 3-0으로 꺾은 튀르키예와 4강행을 다룬다.

‘리틀 김연경’으로 불리는 아웃사이드 히터 손서연(선명여고)이 블로킹과 서브 에이스 3개씩을 터뜨리며 19점을 퍼부었다.

어민서(한복고·15점)와 장수인(경남여고·10점)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1세트에서 최민주(경해여중)의 단독 가로막기로 12-11로 주도권을 잡은 이래 줄곧 3~4점 차로 앞서가던 한국은 20-19에서 어민서의 이동 공격과 손서연의 페인트 득점, 다시 어민서의 중앙 속공 3연속 득점으로 격차를 다시 벌렸다.

금별(금천중)이 세트 포인트에서

서브 에이스로 1세트를 마무리했다.

무려 9점 차로 말쑥잡지 달아나 손쉽게 2세트도 마무리한 한국은 3세트 초반 손서연의 연속 서브 득점에 힘입어 11-5로 점수를 벌렸다.

이어 손서연과 최민주의 연속 블로킹과 어민서의 서브 에이스를 묶어 20-11로 도망가 필리핀의 백기를 받아냈다.

한국은 공격 득점에서 43-29로 필리핀을 압도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6경기 연속 한 번도 5세트까지 가지 않고 4세트 이내에 이겼다. 연합뉴스

서귀포시청 전지훈 대통령배 수영 접영 100m ‘금’

서귀포시청 수영부가 ‘제45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서귀포시 수영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주완산수영장에서 개최된 ‘제45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 전지훈(사진)이 남자일반부 접영100m 1위, 50m 3위, 윤준상 선수가 자유형800m 2위, 1500m 2위를



차지하며 총 4개의 메달을 따냈다.

전지훈은 지난 7월 군 제대 후 서귀포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에 합류했으며, 첫 출전 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비롯해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위영석기자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께 깊은 감사올리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 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장차 어변성룡

(魚變成龍)물고기가 변하여

용이된다는 어느 성인이 말처럼

이제 더 큰 변화와 도약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결의 정신으로 하나되고,

대 공익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가야 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분열보다 화합을,

갈등보다 상생을,

절망보다 자긍심과 희망을

선택하는 나라.

우리 모두의 하나된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생활선문화원

원장 김 남 호